MIRAE ASSET
미래에셋증권

Market Insight
2026.2.11

Mirae Asset Research AI

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(AI)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.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감수]
김주연
Jooyoun.kim@miraeasset.com

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

미국 증시 혼조..다우는 또 최고가

- 미국 증시 주요 지수 혼조..다우는 또 최고가
- 연말 소비 대목 효과 실정, 미국 소매판매 '제로' 성장
- '금리 동결'에 무게 실은 연준 위원들

Summary

2월 10(현지 시각)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.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.10% 상승한 50,188.14에 마감해 사상 최고가 재차 경신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.59% 하락한 23,102.47에 거래를 마쳤고 S&P500 지수는 0.33% 하락한 6,941.81에 마감. 중소형지수 러셀2000은 0.34% 하락 마감. 이 날 주요 지표로는 상무부가 집계한 12월 소매판매가 발표. 12월 소매판매는 7,350억 달러를 기록해 전달 대비 증가율이 '제로'에 머무름.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 0.4% 증가도 하회.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.4% 증가했지만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이 2.7%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분 제외시 실질 소매 판매는 오히려 역성장했을 가능성. 이에 애틀랜타 연은은 GDP 나우 모델로 추정하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연율 환산 기준 3.7%로 이전 추정치 대비 0.5%포인트 추가 하향함. 부진한 소비 지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국채 금리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금리 국채 금리 낙폭을 제한함. 로리 로건 미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추가 하락하거나 노동 시장에 실질적 추가 냉각이 나타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완고하게 높은 수준의 인플레 장기화가 더 우려된다며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실음.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. 그는 나아가 현재 연방 기금 금리 경로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. 한편 소비 지표 부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용 보고서 발표에 대한 시장 주목도는 더 상승.

(다우 +0.10%, 나스닥 -0.59%, S&P500 -0.33%, 러셀2000 -0.34%)

특징종목

마이크론 테크놀로지(-2.67%)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라인업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틀째 하락. 이외 인텔(-6.19%)이 장 중 낙폭을 지속 확대했으며 스토리지 관련주도 대체로 크게 하락. 웨스턴디지털(-8.19%), 샌디스크(-7.16%), 시게이트(-6.77%). 소비 지표 부진에 월마트(-1.80%)와 코스트코 홀세일(-2.64%) 등의 소매 유통주도 약세. 월마트는 에스티로더가 월마트를 상대로 위조 향수 판매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도 있었음. 모건스탠리(-2.45%) 등 금융주도 약세. 미국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8년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AI 기반 서비스가 금융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작용. 웰스파고(-2.85%), 찰스 슈왑(-7.42%)등이 동반 하락. JP모건은 이 날 최근의 소프트웨어주 낙폭이 과도하다며 지금은 우량 소프트웨어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.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(-0.08%)와 스노우플레이크(+3.80%), 크라우드스트라이크(+1.31%), 팔로앨토 네트웍스(-0.30%), 지스케일러(+2.44%), 센티넬원

(+4.49%), 체크 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(-0.39%)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아. 로빈훗 마켓츠(-1.11%)는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매출 기준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도 약세. 포드 모터(-0.15%)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 분기 실적이 이익단에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.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건 2024년 이후 처음이며 하회 폭도 최근 4년래 최대. 관세 영향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다만 올해는 반등을 예상한다고 밝힌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.

채권, 외환 및 상품 동향* 6시 10분, KST 기준

미국 국채 금리는 소매판매 부진 영향에 하락, 가격 급등. 지표 발표 이후 채권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확대되며 10년물 기준 4주만에 최저, 30년물 기준 1월 말 이후 최저를 기록하기도. 소비 둔화 조짐에 올해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경로가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영향 미침. 다만 일부 연준 위원들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 등을 반영해 장 중 낙폭은 제한적. 결과 2년 물 금리는 3.3bp 하락한 3.452%에, 10년물 금리는 5.9bp 하락한 4.142%에 마감. 나흘 연속 하락세. 30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. 외환시장에서는 부진한 소비 지표 발표 이후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나 금리 하단이 제한되자 달러도 소폭 강세 전환, 달러 인덱스(DXY) 기준 0.04% 상승. 엔화는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 이후 BOJ의 금리 인상에 편안한 여건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에 총선 이후 약세 기조에서 되돌림을 보임. 달러/엔 환율은 154엔대로 하락. 상품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에 대한 관망 심리가 힘을 얻으며 국제유가가 WTI 기준 0.26% 하락. 전일 온스당 5천달러를 돌파한 금값은 소폭 하락했지만 5천달러를 지지했고 은과 구리 등도 소폭 약세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(AI)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.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.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,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